

## 교회의 회복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 교회의 신분 — 그리스도의 몸

성경: 엡 1:22-23, 4:16, 롬 12:4-5, 고전 12:12-13, 14:26

#### I.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 A.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몸이다. 이 몸은 머리의 표현을 위해,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 — 요 3:3, 5-6, 15, 1:12-13, 요일 5:11-12.
- B. 몸은 머리의 충만이며, 충만은 머리의 표현이다 — 엡 1:22-23.
- C.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충만인 몸을 필요로 하신다. 이 몸이 바로 그분의 충만인 교회이다 — 엡 3:10, 1:22-23, 4:10.
- D.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골 1:18, 2:19).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 곧 비밀하고 우주적인 위대한 사람이며(골 3:10-11, 엡 2:15, 4:24)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다.
  - 1. 그리스도는 몸의 생명과 내용이며, 몸은 그리스도의 유기체와 표현이다 — 골 3:4, 1:18, 2:19, 롬 12:4-5.
  - 2.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 표현된다 — 엡 1:22-23, 3:8, 10.
  - 3.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 이 둘은 하나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그리스도는 내적인 내용이 되시고 교회는 외적인 표현이 된다 — 엡 3:16-21.

#### II.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 A.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해 넣어지셨다 — 요 20:22, 고전 15:45하, 6:17, 뱀전 1:3.
- B.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되신 영께서 그분의 선민 위에 내려오셨다 — 눅 24:49, 행 1:8, 2:4, 32-33.
- C.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안에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들 위에는 완결되신 영께서 계신다 — 요 20:22, 눅 24:49.
- D.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산출된 유기체이다 — 고전 12:13, 27, 엡 5:30.

#### I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삼일 하나님의 실재의 영이다 — 엡 4:4, 요 14:17, 15:26, 16:13-14, 요일 5:6.

- A. 실재는 사람들과 사물들의 참된 상태를 가리킨다.
- B.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며, 몸의 모든 실재는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실재의 영이다 — 엡 1:22-23, 4:16, 요 16:13-14.

1.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실재는 그분의 완결되신 실재의 영이다 — 요 14:17, 15:26, 16:13, 요일 5:6.
2.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분께서 소유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실재는 바로 이 실재의 영이다 — 요 16:13-14.
3.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죽음과 부활의 실재 또한 실재의 영 안에 있다 — 엡 2:5-6.
4. 실재의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재가 되게 하신다 — 요일 5:6, 엡 4:4.
5.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빛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신성한 속성들을 포함한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실재의 영에 의해 실재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속성들이 된다 — 롬 15:16하, 14:17, 엡 3:16-17상.
6. 이 속성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실재화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한 속성들의 실재를 소유하고 있다 — 엡 4:24, 골 3:12-15.
7.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포함하여,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신 모든 것도 실재의 영에 의해 실재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체험들이 된다 — 롬 6:3-6, 빌 3:10.

#### IV.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 고전 12:12.

- A.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그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그리스도인데, 머리아신 그리스도 자신과 모든 믿는 이들을 지체들로 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로 구성된다.
  1. 성령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밀스러운 한 그리스도로 간주한다. 이 둘은 함께 결합되어 비밀스러운 한 그리스도, 곧 몸-그리스도가 되었다 — 엡 5:32.
  2.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그분의 몸이 된다 — 롬 12:4-5, 골 3:4, 15.
- B. 포도나무가 즐기뿐 아니라 가지들도 포함하듯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몸-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포함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 곧 그리스도의 부분들이다 — 요 15:1, 4-5, 엡 5:30, 고전 12:27, 롬 12:5.
  1.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일부로 만드시는 요소이자 요인이시다 — 골 3:10-11.
  2. 그리스도의 일부, 곧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야 한다 — 갈 1:15-16, 2:20, 4:19, 엡 3:16-17.
  3.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할 때에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 골 3:4, 10-11.
- C. 한 몸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우리 모두를 한 영을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두었고, 그 영을 마시므로써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몸으로 조성된다 — 고전 12:13.
  1. 그 영을 마시므로써,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몸으로 조성된다.
  2. 우리가 한 영을 마시면 마실수록, 신성한 요소가 더욱더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어 우리를 한 몸, 곧 몸-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 고전 12:12-13.

V.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을 실행해야 한다 — 고전 14:26, 히 10:24-25.

- A. 우리가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 곧 신약에서 보여 주는 길이 없다면, 교회 건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 없다 — 마 24:35, 16:18, 엡 4:11-16.
- B.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축될 길이 없다.
- C.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살아 있는 지체들로서 기능을 발휘하면서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은 성직자-평신도 제도의 원칙 안에서 집회하고 봉사하는 전통적인 길, 곧 천연적인 길과 반대된다 — 계 2:6, 15.
  - 1. 전통적인 길은 사람의 천연적이고 타락한 상태에 들어맞고, 종교적이며, 죽은 사람의 입맛에 맞는다 — 비교 마 25:23-30.
  - 2. 전통적인 길은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지체들의 유기적인 기능을 속박하고 말살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숨 막히게 하고 죽인다 — 계 2:6.
  - 3. 성경적인 길은 영적이다. 이 길은 살아 있는 영적인 사람의 취향에 맞으며, 우리에게 살아 있고 영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 요 4:23-24, 행 13:52, 갈 5:16, 롬 8:4, 딤후 1:6-7.
  - 4. 성경적인 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유기적인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다 — 엡 4:12-16.
- D.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 1.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삼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이다 — 골 2:19, 엡 4:15-16.
  - 2. 주님은 모든 이들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신언하는(주님을 위해 말하는), 상호성이 있는 교회 집회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분배하는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4:4하, 12, 31, 비교 마 16:18.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몸-그리스도를 체험함

함께 짜임

골로새서 2장 2절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짜이는 것은 몸의 문제이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짜이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금 얻을 수 있지만, 교회로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연합되고 함께 짜이는 방식으로 교회로서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짜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기로 교회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의견을 달리하지 말고 단순히 교회와 함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하나를 유지한다면, 교회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그분의 몸을 돌보시는지를 알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의 하나를 관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결코 이견을 갖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교회와 함께 짜여야 한다. 교회와 함께 짜인다면 우리는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행함

골로새서 2장 6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분은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몸-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는 단체적인 몸이시기 때문이다(고전 12:12).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그리스도만 관심할 뿐 교회는 관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관심하고 교회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몫을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두 관심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관심하며 또한 당신의 몸을 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께서 머리이시며 교회는 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이 없이 머리만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님, 저는 오늘날 당신께서 더 이상 단지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과 함께하시는 머리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몸-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저는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몸도 받아들입니다. 저는 몸-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다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강탈당했다. 대부분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약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만 관심할 뿐, 교회는 관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생활 안에 들어와 교회를 관심하기 시작한 이후로 영적인 생활에 큰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풍성하다는 내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역만장자이다. 우리는 모두 부자이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이루어짐

골로새서 2장 9절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하는 몸-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적적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 곧 그리스도 자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할 때 교회가 산출된다(엡 3:10).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의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으로부터 산출된다.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장중하고 높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얼마나 누리는데 달려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은 교회가 산출되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했다.

###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는 길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계시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분의 인격은 생명 주시는 영이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 영은 인격이다(고후 3:17). 따라서 우리는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영을 받아들인다.

더욱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말씀이심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다만 생명 주시는 영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시다(요일 1:1). 우리는 살아 있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동일시하여 이 두 말씀을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기도로 읽을 때, 살아 있는 말씀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읽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라고 말한다. 말씀을 먹는 길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영을 들이마시고, 기도로 읽음으로써 말씀을 먹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먹는 놀라운 길을 보여 주셨다.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양육을 받는다(엡 6:17-18).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우리 안으로 들이마시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리스도의 온 존재는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다(고전 15:45하, 요 6:63, 15:4, 7).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말씀을 섭취할 때 양육을 받는다. 다만 예수님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그 영을 우리의 영적인 호흡으로,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린다.

#### 단체적으로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

우리는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 나는 종종 아내와 함께 이렇게 주님을 누린다. 어떤 사람도 혼자 먹어서는 잔치를 누릴 수 없다. 우리의 식탁에 많은 음식이 있을지라도 혼자서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잔치가 아니다. 잔치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단체적으로 먹는 것은 큰 누림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혼자서 누릴 때보다 그리스도의 풍성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가능할 때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온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마시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몸의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두어졌다. 마실 수 있는 위치는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집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몸 안에서 마실 필요가 있다.

####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광대한 차원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음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했고 그 풍성으로부터 교회가 산출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국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원문에 따르면 ‘마음들’임—역자 주)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이 구절은 많은 마음들을 언급하지만 오직 한 거처를 언급한다. 이것이 몸이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라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차원, 곧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헤아릴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다. 우주는 헤아릴 수 없으며,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이 그리스도의 차원이다.

####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됨

에베소서 3장 19절은 계속해서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강하게 되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은 몸-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

###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몸-그리스도의 회복임

주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몸-그리스도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몸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마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몸이 필요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교회생활 안에서 몸-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몸-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확증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생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집에 있다고 느끼며 만족을 얻는다.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만족을 얻는데, 이것은 이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기 때문이다. (워트니스 리 전집, 1973-74년, 1권,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 746-752쪽)

###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임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일 아침 집회가 너무 형편없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있으면서 용어 색인과 단어 해설과 각주가 있는 좋은 주석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고 해도,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교회 집회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만큼 많이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주님을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에 상관없이, 그러한 방식으로는 여전히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교회 집회들에 와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몸 안에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구절 전체를 볼 때,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몸 안으로 넣어졌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여전히 혼자서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을 부르며 심지어 외치려고 노력한다고 하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누림은 있겠지만, 이 누림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것이다. 나무 조각 한 개만 가지고 불을 피우는 것은 어렵다. 많은 조각들이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되면 한 조각이 다른 조각을 태우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오, 주님!”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할렐루야!”라고 말한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서로를 불태운다. 우리는 서로 강하게 하고 섬기며 공급한다. 이렇게 우리는 머리뿐만 아니라 몸을 가진 머리를 누린다. 또한 개인적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그리스도를 누린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13절(참조 영어 회복역)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영어 회복역에서는 ‘for’로, 헬리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함—역자 주). 이것은 이 구절이 앞 구절의 연속과 정의와 설명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지체는 한 몸이며 이 몸은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시체일 것이다. 영이 몸을 떠날 때 몸은 분해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 있다면, 우리 몸의 많은 지체는 살아 있으며 또한 하나이다. 모든 지체가 하나로서 연결되도록 지켜 주는 것은 우리의 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로서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그 안에서 침례를 받았던 그 한 영은 그리스

도이시다.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몸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몸이시다.

우리 모두는 몸 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 반복해서 말하면, 이 한 영은 생명 주시는 영, 곧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고, 그리고 몸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한 영, 곧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 결국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해지고 흘러넘치고 적셔지고 침투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서로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 한 몸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모든 지체를 포함한 몸을 누린다. 사십 년 이상 나는 계속해서 단체적인 방식으로 몸-그리스도를 누려 오고 있다. 몸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풍성하시다고 선포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더 이상은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면에 내가 몸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더 말할 것이 많아진다. 이것은 내가 말함으로써 몸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더욱더 몸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몸에게 공급하고 있는 동안에, 몸은 나에게 공급하고 있다. 만약 성도들이 내가 말할 때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몸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질 것이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몸의 공급이 없다면, 나에게서 몸에게 공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모든 지체들이 반응한다면, 이것은 몸이 나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몸-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의 흐름과 순환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몸-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많은 훌륭한 교사들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 지혜, 의, 거룩하게 함, 구속, 하나님의 깊이들, 기초, 유월절, 영적인 음식, 영적인 물, 영적인 반석, 머리아시라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거나 또는 그분께서 몸-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부터 시작하여 첫 열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생명 주시는 영, 몸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모든 항목을 누리는 것의 결과는 몸-그리스도이다. 몸-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충만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산출된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누리는 것은 놀랍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몸-그리스도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그분을 한 방면에서 누리는 것이지만, 몸-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몸-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한다. “우리가 함께 모이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네”(영어 찬송가 1196장). 몸-그리스도로서 함께 모이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고 미래에나 있게 될 하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함께 모인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몸-그리스도를 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집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다른 항목들로 누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몸-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한 집회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몸-그리스도, 몸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몸-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는 다른 장소는 없다. 오직 교회가 함께 모이는 곳에 있다. 심지어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집회에서도 우리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특별 집회에서 누리는 것만큼 많은 그리스도를 누리지는 못한다. 특별 집회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몸-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하여 특별 집회에 가는 것은 가치가 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와 같은 누림을 얻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몸-그리스도를 누린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3-74년, 1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림, 284-288쪽*)